

미라본 2020년 假想신문

2020년 3월 5일 42판

## “韓·日 해저터널 폭파” 협박

양국 경찰 극비리 수사

을 초 완공 개통된 한·일 해저터널(그림)을 오는 10일 폭파하겠다는 영문 협박장이 지난달 15일 한·일 철도 당국으로 동시 배달돼 양국 경찰이 극비리에 수사중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 협박문은 지난달 10일 서울역과 일본 오사카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의문의 폭파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밝히고, 당시 사용된 폭약의 종류와 정확한 설치 위치 등을 담은 자료를 협박장에 등봉했다. 두 나라 경찰은 사실상 미궁 상태인 지난달 폭파사건의 내용과

아들이 보낸 자료가 완벽히 일치한 점을 중시, 이번 협박이 실제 감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협박문은 해저터널을 폭파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화 5000만 달러(500억 원)를 스위스 은행에 입금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수사 당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 경찰이 200명의 최정예 전담반을 편성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와 수사 협조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도 기초적 사실은 통지했다”고 말했다.

해저터널 철도 운행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저터널에는 하루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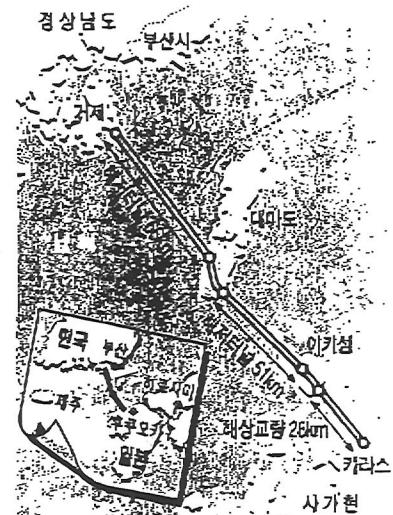
균 일본 신칸센(新幹線) 30편, 한국 고속철(KTX) 20편, 중국 및 러시아 고속철 15편 등 65편의 고속열차가 총 4만여 명의 각국 승객을 태우고 오가고 있다.

### “서울·오사카역도 내가 폭파”

한·일 해저터널은 거제~쓰시마섬~이카섬~카라스(큐슈)를 잇는 총연장 145km로, 수심이 알아 해상교량을 세운 이카~카라스(28km)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17km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건설됐다. 일본 물가로 150조 원에 따른 사업비를 일본 80%, 한국 10%, 중국 7%, 러시아 3%로 분담해 2008년 착공, 12년 만에 완공됐다.

/李忠一기자 cilee@chosun.com

▲도움말 - 최훈(55) 전 철도청장 -



최창식(49)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 -  
박철암(43)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 총  
괄임장)

2001年3月5日  
あらかじめ見る2020年 仮想新聞

**朝鮮日報 創刊81周年特集 MEDIA**

## “韓日海底トンネル爆破” 脅迫

### 両国の警察が極秘裏に捜査

今年始め完工し開通した韓日海底トンネル[絵]を、来る10日に爆破するとの英文の脅迫状が先月15日、韓日鉄道当局に同時配達され、両国の警察が極秘裏に捜査中であることが4日明らかになった。

この脅迫犯は先月10日ソウル駅と日本の大阪駅で同時に発生した疑問の爆破事件も自身が仕組んだものであると明らかにし、同時使用した爆薬の種類と正確な設置位置などをしたためた資料を脅迫状に同封した。両国の警察は事実上迷宮入り状態である先月の爆破事件の内容と、彼らが送ってきた資料が完璧に一致した点を重視し、今回の脅迫が実際に強行される可能性も高いと見ている。脅迫犯は海底トンネルしないための条件として5000万ドル(500億ウォン)をスイス銀行に入金せよ、と要求をしたことでも明らかになった。

韓日の捜査当局は“事件を解決するため両国の警察が200名の最精鋭先端班を編成し、総力をかたむけている”とし、“万一の事態への対応と捜査協力のため中国とロシアにも基礎的な事実を通知した”と語った。

海底トンネルの鉄道運行が突然中断した場合、甚大な混乱と不便がもたらされるとみられる。現在、海底トンネルには一日平均で日本の新幹線30便と韓国の高速鉄道(KTX)20便、中国およびロシアの高速鉄道15便など65便の高速列車が総4万余名の各国の乗客を乗せて往来している。

### “ソウル・大阪駅も私が爆破”

韓日海底トンネルは巨済島～対馬～壱岐～唐津(九州)を結ぶ総延長145Kmで、水深が浅く海上の橋梁を建築した壱岐～唐津(28Km)の路線を除く残り117Kmが世界最長の海底トンネルとして建設された。日本の物価で150兆ウォンに達する事業費を日本80パーセント、韓国10%、中国7%、ロシア3%の分担で2008年に着工し12年振りに完工した。

▲ 助言 チェフン(55)前鉄道庁長、チェチャンシク(49)ソウル市地下鉄建設本部長、  
パクチョラム(43)高速鉄道技術開発事業団総括チーム長